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눅2:1-14

기독교의 3 대 절기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3 절기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부활절이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강림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기에 성탄절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없이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1.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 년 전에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상세하게 예언 되었습니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 장 2 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흙모함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여린 순같이 태어나는 것에 감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의 가난한 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고 토양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모가 특별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누가 이 소식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특별히 계시를 주지 않는 바에야 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00 년 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온 세상을 다시릴때에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난것입니다. “(눅 2:1-2)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

로마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호적에 대한 명령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호적명령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계획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황제가 호적을 하게 한 것도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수리아 총독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은 실컷 자기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자신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해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복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28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축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에 대해서는 무려 54 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갈림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에 이끌리기보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2. 큰 기쁜 소식

“**(눅 2:9-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음을 가져온 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종교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인류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출애굽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 3.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

기묘자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것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은 기묘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막혀 있을 때, 기묘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분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사란 남을 위해 죄를 내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에 제 삼자가 당사자를 위해 지혜를 짜내어 문제의 해답을 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을 다섯번이나 바꾸고 여섯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소망이 넘쳐 동네에 뛰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모사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능자란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중에 큰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정의는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전달한 자라는 의미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심령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 받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 하면 여러분 위대한 문학가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탄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구 소련의 작가로서 당시의 체제를 비판하다가 반역자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눈도 희미하고 정신도 아물아물하고 말도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철창 밖에 어떠한 사람이 앞에 다가와서 자기와 가만히 눈을 맞추더니 발로써 십자가를 크게 하나 그려놓고 난 다음, 손으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솔제니친이 철창 밖에서 하는 그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그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 발로써 그리던 그 자리에 십자가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큰 생각이 그 몸 속에 들어왔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하나 부탁하여 그때로부터 주야로 읽으며 용기와 희망을 얻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암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 풍성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2천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방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그 길(십자가)을 묵상하며, 각자에게 임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 (예수님 탄생 당시 호적명령처럼) 세상의 지혜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실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언제 절실히 느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4. (지난 1년간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함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귀기를 경험하신 것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2015년 성경통독과 묵상에 대한 결단도 나누어 주십시오.)
5. 2014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받은 복)들을 정리하며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미 작성한) 2015년년특새(1/5-1/25) 기도제목들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